아시아축구연맹, 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밀도·평탄성 등 실사 결과 '양호'

ACLE 5차전 홈경기 광주서 열린다

광주FC, 오는 27일 중국 상하이 선화 상대 4승 도전

아시아챔피언스 엘리트(ACLE) 5차전 홈경기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다.

광주시는 12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아시아챔피언스 엘리트 5차전 홈경기 개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홈경기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디의 밀도와 평탄성을 집중 점검했다.

광주시는 이번 실사에 대비해 폭염·폭우 등으로 훼손된 잔디 부위를 중심으로 롤 잔디 보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14-17일 경기장 중앙 부분 약 1천500㎡(450평)를 롤 잔디로 깔고 나머지 부분은 코어 보식을 실시했다.

아울러 영양제, 비료 살포, 병충해 작업 등을 통해 건강한 잔디 환경을 조성했다.

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는 복원 작업 이후 뿌리 활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씨앗 파종을 통해 잔디가 새롭게 자라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잔디의 밀도와 탄력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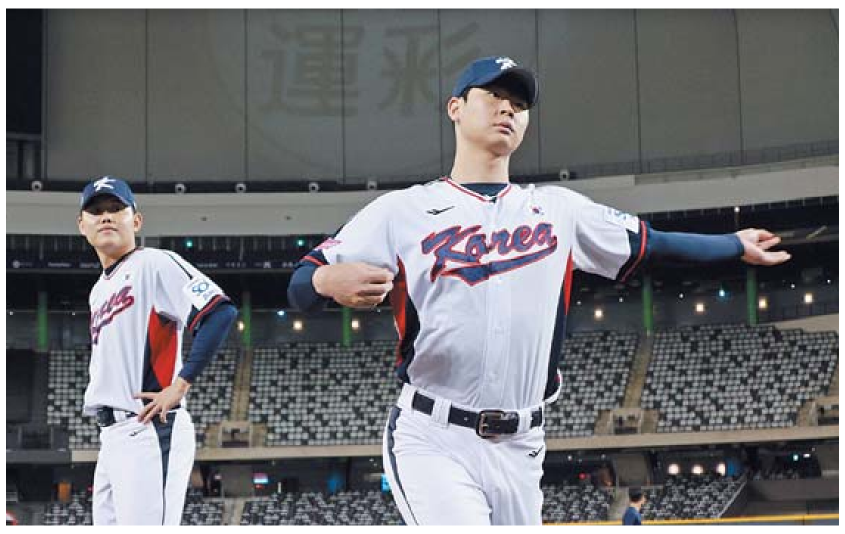
아시아축구연맹(AFC) 경기감독관은 잔디 상태, 골대 규격과 위치, 라인마킹 등을 점검했으며 최종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홈경기 개최를 확정했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3차전을 홈구장이 아닌 다른 구장에서 치르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잔디 컨디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아시아축구연맹 관계자들이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5차전 개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한편, 광주FC는 오는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중국)와 2024-2025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5차전을 치르고 12월3일 상하이 하이강(중국)과 원정 6차전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광주FC는 구단 사상 첫 아시아챔피언스 무대에 진출, 3연승 후 지난 5일 일본 비셀 고베에 0-2로 패하며 현재 동아시아권 12개 팀 중 2위를 달리고 있다. /박선강 기자



12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프리미어12 한국 야구대표팀 공식 훈련에서 마운드에 오른 곽도규(KIA)가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우승하고 FA포인트 받자"

프리미어12, 1군 '등록일수 50일' 해당 50포인트 획득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한국 야구대표팀에 소집된 28명의 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받는 '일당'은 30만원이다.

대표팀 선수들에게 일당보다 훨씬 중요한 건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다.

KBO는 2009년 이후 국가대표 소집일부터 해산일까지 날짜만큼 프리에이전트(FA) 등록일수를 보상해오다가 2017년 대표팀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KBO 규약에 따르면, 이번 프리미어12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28인 엔트리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기본 10포인트를 받는다.

대만에서 6개 팀이 치르는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서 4강에 진출하면 추가로 10포인트를 받는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최종 50포인트, 준우승하면 30포인트를 획득한다.

이때 받은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계산된다.

KBO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8' 정규시즌(4년제 대졸 선수는 '7' 정규시즌)을 채우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소속팀 승낙을 받아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해외 리그에 진출하기 위한 요건은 '7' 정규시즌이다.

선수들은 정규시즌(1군) 현역 등록일수 145일을 넘기면 '1' 정규시즌을 인정받는다. 만약 부상이나 부진 등으로 1군 등록일수가 부족하면, 국가대표 보상 포인트로 이를 채워 '1' 정규시즌을 만들 수 있다.

우승했을 때 가장 혜택이 큰 대회는 올림픽과 WBC로 각각 60포인트를 받는다. 그 뒤를 아시안게임(25포인트), APBC·아시아야구선수권, 야구월드컵(각 20포인트)이 잇는다.

다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그 대회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없다.

만약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2026 WBC,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누적 145포인트 이상 쌓으면 '1' 정규시즌으로 인정받아 실제로는 FA 자격 취득을 1년 앞당길 수 있다. /연합뉴스

달궈진 유럽파 발끝, 쿠웨이트 골문 '정조준'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쿠웨이트 압둘라 알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경기장을 가볍게 돌며 컨디션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내일 오후 11시 월드컵 3차 예선 5차전 대결

손흥민 복귀, 이강인·이재성·황인범 '뜨거운 존재감'
원정·완전체 훈련 부족 부담…'방심은 금물' 총력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부상에서 돌아온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유럽파 선수들의 뜨거워진 발끝 감각을 앞세워 '11월 중동 원정 2연전'의 첫 상대인 쿠웨이트 격파에 도전한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을 펼친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1-4차전에서 무패 행진(3승 1무·승점 10)을 이어가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조 1-2위 팀은 월드컵 본선 직행권을 차지한다.

홍명보 감독은 "원정으로 치러지는 이번 2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며 "비록 상대가 약체로 불리지만 원정 경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웨이트전을 앞둔 홍명보호의 분위기는 최상에 가깝다.

무엇보다 지난 9월 소속팀 경기 도중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대표팀의 10월에 치른 월드컵 3차 예선 3-4차전에 결장했던 '캡틴' 손흥민이 합류한 게 홍명보호에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다.

최전방과 측면까지 모두 소화하는 '완성형 골잡이'인 손흥민의 존재는 홍 감독의 공격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지난 주말 소속팀에서 맹활약을 펼친 유럽파 공격수들의 발끝 감각도 홍 감독의 전술 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10일 앙제와의 2024-2025 프랑스 리그1 11라운드 원정 경기에 2골 1도움 '원맨쇼'를 펼쳤고, 이재성(마인츠)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독일 분데스리가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36분 헤더 선제골로 팀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또 대표팀의 '중원 사령관' 황인범(페예노르트)은 알메러와의 2024-2025 에레디비시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3분 만에 헤더로 골 맛을 보며 팀의 4-1 승리에 기여했다.

이에 앞서 홍명보호의 '젊은 공격수' 배준호(스토크시티)는 9일 밀월과의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15라운드에서 코너킥으로 도움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홍 감독은 이번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방심을 가장 경계한다.

비록 FIFA 랭킹과 월드컵 3차 예선 순위에서 약체로 꼽히지만 홈 경기의 이점을 가진 만큼 날씨, 그라운드 상태, 일방적인 응원 등 다양한 변수를 이겨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게 홍 감독의 생각이다.

홍 감독은 "우리가 가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터무니 없이 흔들릴 때가 있다. 쿠웨이트전까지 완전체로 훈련할 시간이 많지 않은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7세 당구 천재' 김영원, PBA 투어 역대 최연소 우승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김영원(왼쪽) 〈PBA 제공〉

'당구 천재' 김영원(17)이 프로당구 PBA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영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끝난 NH농협카드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전에서 오태준(크라운해태)을 세트 점수 4-1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김영원은 17세 23일로 정상에 올라 여자부 LPBA 김예은(웰컴저축은행)이 2020-2021시즌에 세운 종전 프로당구 최연소 우승(20세 11개월13일) 기록을 훌쩍 앞당겼다.

2022-2023시즌 챌린지투어(3부)를 통해 15세의 나이로 프로당구 무대에 뛰어든 김영원은 지난 시즌 드림투어(2부)로 승격해 두 차례 준우승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냈다.

와일드카드를 통해 1부 투어에도 틈틈이 출전해 경험을 쌓았고 프로 3년차인 올해 기량을 완전하게 꽃피웠다.

올 시즌 첫 대회인 우리금융캐피탈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더니 이번에 기어이 우승 트로피를 품고 우승 상금 1억원을 획득했다.

오태준은 1년 10개월 만의 우승에 도전했으나 김영원의 돌풍에 막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바이에른 뮌헨 '철기둥' 김민재 "전 세계 센터백 중 경기력 최고"

FIFA 연구소, 분석 결과 발표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AP=연합뉴스

한국 축구 '수비의 핵'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올 시즌 전 세계 센터백 가운데 최고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FIFA 산하의 국제스포츠연구소(CIES)는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 센터백 10인을 선정하며 김민재를 최상단에 뒀다.

CIES는 자체 지표로 경기력을 분석해 김민재에게 100점 만점에 91.1점을 매겼다.

EPL을 대표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후방을 책임지는 후벵 디아스도 89.7점에 머물러 김민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올 시즌 EPL 선두를 달리는 리버풀의 이브라히마 코나테, 버질 판데이크가 각각 89.5, 89.4점으로 3, 4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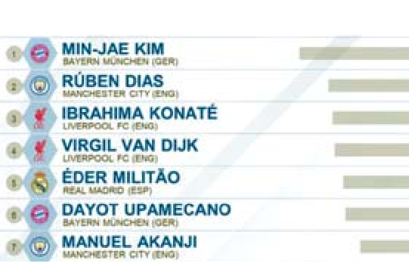
UEFA 챔피언스리그(UCL)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에데르 밀리탕(89.0점)과 김민재와 짝을 이루는 다요 우파메카노(바이에른 뮌헨·88.9점)가 5,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마누엘 아칸지(맨체스터 시티·88.2점), 이니고 마르티네스(바르셀로나·88.2점), 빌리 오르반(라이프치히·87.1점), 마르턴 더론(아탈란타·87.0점)이 그 뒤를 이었다.

김민재가 맹활약한 뮌헨은 최근 공식전 5경기(정규리그 3경기+UCL 1경기+포칼 1경기)에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재-우파메카노 조합으로 중앙 수비를 짠 뮌헨은 리그에서도 올 시즌 치른 10경기에서 7실점에 그쳤다.

특히 지난 6일 벤피카(포르투갈)와 2024-2025 UCL 리그 페이즈 4차전에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6차례 그라운드 볼 경합을 모두 따내고, 패스 성공률은 100%를 기록했다. 113차례 패스를 시도해 모두 정확히 동료에게 공을 전달했다.



〈국제스포츠연구소(CIES)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연합뉴스